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리며, 2023년 4월 저희 가정의 소식과 기도 편지를 보내드립니다.

† 이른 비와 늦은 비, 적당한 때 *תָּמַר* (에트)

이스라엘은 지금 유월절을 지나고 오순절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3, 4월 봄 절기 시기에 이스라엘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신 11:14)

이스라엘은 지중해성 기후와 아열대성 기후가 교차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건기의 여름과 우기의 겨울이 분명하게 구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5월 부터 시작되는 여름 동안에 이스라엘에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고 고온 건조한 날씨만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11, 12월 부터 시작되는 겨울에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됩니다. 하늘의 비만을 의존하여 경작했던 이스라엘 전통 농업은, 겨울 우기 동안만 가능한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겨울 우기 동안 내리는 비는 세 종류로 구분됩니다. 겨울이 시작되면서 내리는 이른 비(10월 경)와 겨울 우기가 끝나는 마지막 기간에 내리는 늦은 비(4월 경), 그리고 이 두 기간 사이에 내리는 겨울비 등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각각 전체 강우량의 15%에 불과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강조합니다. 비록 강우량은 미미하지만, 그것이 농작물에 끼치는 영향과 중요성이 무척 크기 때문입니다. 이른 비가 내려야만 여름 동안 메말라 있던 땅이 젖고 부드러워져 파종이 가능하게 되고, 늦은 비는 겨울 우기 동안 자란 곡식들을 더욱 충실하게 맺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농부들은 이러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늦은 비가 오는 때입니다. 유월절을 지나 50일을 계수하며(오메르 카운트) 오순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늦은비가 내려야 곡식이 잘 영글어갈 수 있습니다.

물부족 국가인 이스라엘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은 인간 삶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비를 내려 주신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이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적당한 때에 이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때’ 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תָּמַר, 에트’ 로서, ‘대답하다, 반응하다’ 를 의미하는 ‘תָּמַר, 아나’ 에서 기원한 단어입니다. 곧 ‘에트’ 는 필요에 부합하는 최적의 때라는 뜻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결정적 기회의 시간, 하나님의 때’ 을 의미하는 ‘카이로스’ 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에트, 카이로스, 때’ 를 따라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십니다. 우리는 그 때를 늘 기다립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준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과 같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이제는 정확한 그 분의 때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약 5:7-8)

한편 주님이 오시기 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때를 따라 큰 구원을 행하실 것이라고 요엘서 2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찌니 이는 여호와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욥 2:1)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크고 두려운 여호와와의 날에 막강한 군대가 이스라엘을 향해 전진해 올 것입니다. 그 기세에 아무라도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 때에 주님의 마음은 이제라도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울며 회개 하며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공허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찌어다” (욥 2:12, 13)

젓먹이와 갓 결혼한 신랑신부까지 모두 나와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 기도합니까? ‘주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울부짖으라고 하십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성회로 불러 모아 금식하며 기도할 때 큰 구원을 행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금식하며 회개한 시온의 자녀들은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것이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따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라는 땅의 소산물을 얻을 것입니다. 그들은 풍족히 먹을 뿐만 아니라 이 소산물들로 주님께 전제와 소제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찌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히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욥 2:18-27)

저희는 이 유월절을 지내고 오순절을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야겠다 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여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따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참 구원이신 예슈아를 계시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유대인들의 마음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만큼 부드러워 지고, 짝이 트고 자라나 영광은 구원의 열매를 맺기까지 주님께서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하루에 한끼라도 금식하며 이스라엘을 위해,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욥 2:27)

†이스라엘 소식

현재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가자지구), 시리아, 레바논으로 부터 수십발의 로켓 공격을 받고 예루살렘, 텔아비브, 요르단 계곡 등 곳곳에서 테러가 일어나고 있는 등 엄중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1. 유월절 전날부터 급격하게 안 좋아진 이스라엘의 상황은 서안지구 요르단 계곡에서 엄마와 두 딸이 살해된 테러와 같은 날 저녁 텔아비브 해변에서 이탈리아 관광객이 살해된 테러로까지 이어졌습니다.
2. 무슬림 라마단 기간인 현재 저녁에는 성전산 위의 알 약사 사원 폭도들과의 대치가 거의 매일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3. 수요일부터 갑자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풍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붓기 시작하면서 네게브를 지나던 한 차가 홍수에 쓸려가 남매 2명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4. 라마단 마지막 10일간 유대인의 성전산 출입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은 네타냐후 총리가 2013년부터 성전산에서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내린 조치로서, 몇 년 동안 극우정당들의 불만을 사오던 조치였습니다. 벤 그비르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치에 반대하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으나, 이는 성전산에서의 충돌이 계속 아랍 소셜 미디어에 돌며 선동되고 있는 가운데, 라마단 마지막 금요일을 앞두고 모든 방면에서 충돌을 줄이기 위한 노력입니다.
5. 유월절 기간을 기점으로 고조되었던 로켓 공격

과 테러, 아랍 소셜 미디어의 선동 등 이 모든 것의 배후로 이란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타격 암살 등 이스라엘이 이란에게 행했던 공격들에 대한 보복을 전략적으로 계획해,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에서의 공격과 사회 내에서의 테러를 동시에 발적으로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중동 내에서 세력이 줄어들고, 우크라이나, 중국, 러시아가 도발하고 있는 사이, 헤즈볼라 나스탈라와 하마스의 하니예가 레바논에서 만나고, 사우디와 이란이 양국간 대사관 재오픈을 논의하며 회담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아랍 국가들에게 외면 받아 왔던 시리아의 외무부 장관이 사우디를 방문하는 등 주변 아랍 국가들이 활발히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6. 아브라함 협정을 맺으며 이스라엘은 수니 아랍 국가들과의 비즈니스 교역 등 많은 외교적인 관계가 좋아졌었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아랍 나라들의 연대를 볼 때 중동 정세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핵무기 위협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과 테러 무장 단체를 통한 프록시 전쟁이 이스라엘을 전면전으로 끌고 들어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7. 한국으로 관광을 간 33명의 이스라엘 관광객이 버스 전복 사고를 당해 1명이 사망하고 32명이 부상 당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한국과의 관계를 보호하시고, 다친 사람들이 속히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8. 이스라엘 정부의 사법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견제 수단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이스라엘 의회에서 통과되면서 네타냐후 총리의 '부패 혐의 무마용'이라는 지적을 받는 사법 개혁 추진에 대한 항의 시위가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KRM 뉴스 참조)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제목

1. 중동 정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결국 성경의 예언대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시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슥2:5) 원수의 소리를 잠잠케 하시길 기도합니다.

2. 이 땅에 테러가 그치게 하여 주시고,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무고한 피 흘림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3. 성경의 예언대로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오는 알리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포수의 시대가 오기 전에 어부의 시대인 지금 속히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소서.

4. 수주 췌 이어지고 있는 시위가 안정되게 하시며, 이스라엘 정부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올바른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 요셉의 창고 소식 및 가정 기도제목

요셉의 창고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이스라엘의 회복과 다음세대를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세우는 비전을 갖고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계속 유입되어 고된 삶을 살아가는 이민자들에게 주님의 긍휼과 구제 섬김으로 다가가려 합니다.

1. 줌 미팅 일대일 제자양육

네게브에서 만난 우자이 터키 자매와 매주 줌미팅으로 일대일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매는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나 무신론자가 되었다가 네게브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널리스트로서 활동하는 우자이는 터키 내 기독교 탄압을 비판하는 기사로 인해 터키 정부의 표적이 되어 본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현재는 그리스에 머물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자이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자이가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바로 서고, 그리스 체류를 위한 비자가 해결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헥터 할아버지는 외로운 삶에 지쳐 고국으로 돌아가기로 마음 먹었으나 저장 강박증으로 인해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계십니다. 저장 강박증은 불

필요한 물건이라도 버리지 못하고 집에 쌓아 두는 집착 증세인데 독거 노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치매 증상 중 하나의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증상을 인지하고 계시며 정부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통해 치료를 받고 계시나, 저장 강박증으로 인해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정부 제공 노인 아파트에서 주변 사람들과 마찰을 빚는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스라엘에서 나의 유일한 가족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전화로 들으면 브엘쉐바에 계시서 잘 찾아 뵙지 못하기에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든 전도하려는 할아버지의 삶이 그 분의 이름과 능력으로 참 자유함을 얻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 갈멜산 한국어 교실

최근 갈멜산에서 사역하시는 한국 선교사님들의 한국어 교실 사역을 도와 드루즈족 10대 청소년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두르즈족은 이스라엘 북부지방 산지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소수 민족입니다. 직접적인 복음은 전할 수 없지만 씨뿌리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학생들과 함께



갈멜산 공원에서 봄 소풍

3. 요셉의 창고 미션 센터(기도의 집)

갈멜산과 므깃도 사이에 위치한 이스라엘 평야에 요셉의 창고 미션 센터를 세우고자 합니다.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다음세대들을 말씀으로 훈련하며, 이스라엘과 열방을 위한 중보 기도 센터 및 현지 이스라엘인들을 위한 공휴ل 구제 사역을 펼칠 요셉의 창고가 세워지도록 함께 할 손길들을 기다립니다!

일년치의 하우스 렌트, 유지비와 센터 물품(예배용 악기, 숙소 가구 등 비품) 구입비로 3000만원(250만원/월) 후원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10% 정도의 재정이 채워졌고, 정확한 하나님의 때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 오순절까지 아침 금식을 하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과 기도를 해드릴 수 있도록.

5. 맡겨 주신 두 자녀 에덴, 유환이가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으로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영혼육이 건강하고, 척박한 이 땅에서도 물 댄 동산과 같이 말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을 흘려 보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기도와 물질로 섬겨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곳 이스라엘에서 저희도 여러분을 위해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마라나타!

갈멜산-므깃도, 이스라엘 평야에서